

GTX-C는 2028년 개통에 차질 없도록 일정 관리 중입니다.

< 보도 내용 (동아일보, 6.21) >

◆ 치솟는 공사비에, GTX C 착공식 5개월째 첫 삽도 못 떠

- 공사비 급등으로 자금조달이 미뤄지며 아직까지 착공계 미제출
- C노선은 사업 신청 이후 원자재값·인건비 등이 17% 이상 올라 손해 발생 예상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작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용지보상, 각종 인허가, 금융조달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통상 실제 공사는 용지보상, 인허가 등을 거쳐 착수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용지가 확보되는 곳부터 수직구 공사 등을 신속하게 착수하도록 사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공공사업 등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3.28)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책임자	과 장	서정관 (044-201-3964)
		담당자	사무관	백정호 (044-201-3983)